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당 초급당비서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조선로동당의 초석과 전투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반아안는데 이어 또다시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걱정과 환희가 활영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기층강화증시사상과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품목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조선

힘있게 이끄는 강위력한 전투적참모부,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품목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조선

로동당의 전투력이라는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충성의 전일체, 혼연일체의 보루로 강화해나가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나갈 열의에 충만된 참가자들을 격려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앞에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오늘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관철의 제일선초소를 지켜선 전당의 초급당비서들이 화성정치일군으로서의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 분투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펼쳐질 위대한 새시대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본사기자

## 고귀한 부름—인민의 심부름군당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소식을 무한한 격동과 흥분속에 접한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가슴뜨겁게 외워보는 고귀한 부름이 있다. 인민의 심부름군당!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인민의 당, 심부름군당, 이것이 우리 당의 유일한 존재명분이고 최고의 정표이며 영원한 본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심부름군당,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말이다. 조선말사전에는 심부름이란 남의 시킴을 받아 그것을 맡아해주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하다면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스승이나 옷사람이기에 심부름군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바로 그이의 말씀에 인민의 심부름군당의 참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인민을 위하여 굶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몸을 적시는 오직 인민만을 위하여는 당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건설사상, 당건설리념이며 드물지 않는 확고한 의지이다.

인민의 심부름군당건설, 정녕 그것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어머니당건설의 계승이고 심화발전이다.

하기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는 새해의 정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총정다해

모시며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셨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의지와 결심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으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인민의 심부름군당의 참뜻을 조국의 대지에 새겨가시었다.

역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서슴없이 걸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분, 한어름의 무더위에 땀으로 온몸을 적시시며 남새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걸으신분, 폭풍이 모든것을 휩쓸어간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

러 위험천만한 철다리로 주저없이 걸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굶은날, 마른날도 가림없이 걸으신 그 걸우에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무수히 일떠서고 기쁨의 웃음소리 높아갔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느해 신년사에서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시며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 하시였으니 그이의 무한한 위민헌신의 세계, 열화와 같은 복무의 세계를 어찌 말이나 글로써 다 전할수 있겠는가.

인민의 심부름군당.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정히 받들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평생의 일관단심으로 간직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이 내용으실수 있는 고귀한 부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민들의 끓어오르는 격정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인다.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심부름군당이 되려는 우리의 신조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인민만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에 이 한몸을 강리도 불태워서라도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격동적인 시대와 더불어 어머니조선로동당을 천만년 믿고 받들 인민의 열의가 하늘땅에 차넘치고 공장과 일터, 협동천아들에서 거세한 창조와 혁신의 불화가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김광익

##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

### 《첫 손님》이 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년전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마식령의 삭도를 자신께서 먼저 타보신 이야기는 사람 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이께서는 마식령의 삭도 뿐이 아니라 세형의 무궤도 전차와 지하전동차도 선함으

로 타보시고 《철쭉》표양말도 신어보시며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모든것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마음 쓰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애민헌신의 숭고한 모습을 보며 세인은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령도자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든다. 인민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령도자가 먼저 <첫 손님>이 되시여 삭도를 타고 유회기구를 타보는 이런 모습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애민헌신의 정경이다.》



## 험한 길 헤쳐가신 곳에는 행복의 별천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험한 길도 앞장서 헤쳐가신다.

그이께서는 울릉불통하고 먼지가 보양계 이는 산골길을 달려 연공과학자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시였고 휴양소가 과학자들을 위한 《금방석》이 되도록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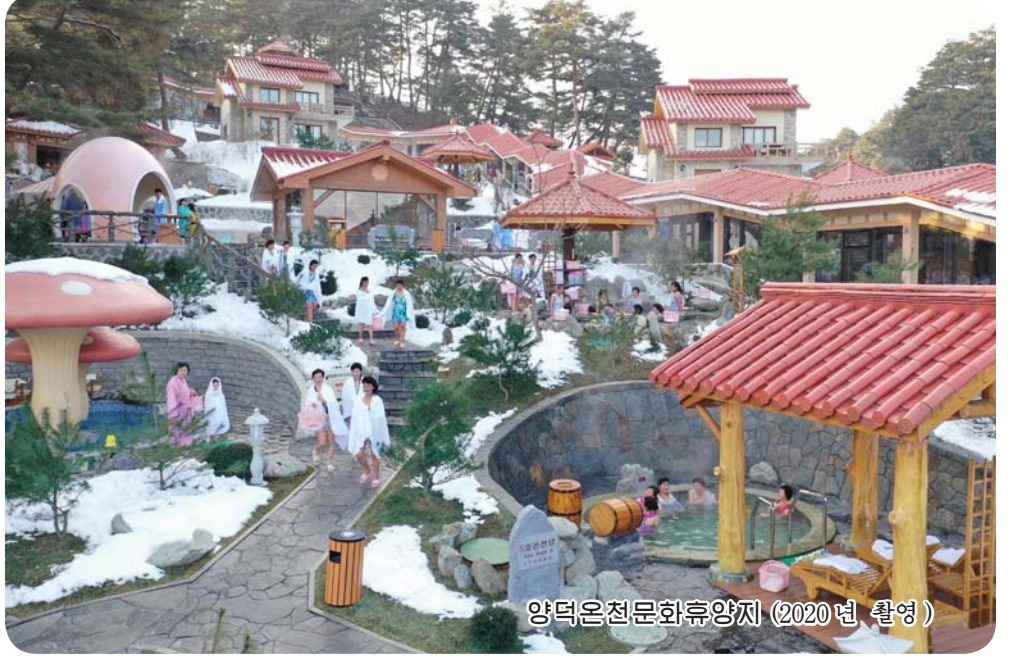
의 건강증진을 위한 온천 휴양지를 마련해주시려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시며 양덕군안의 온천들을 돌아보시였고 물이 질박한 휴양지를 헤치시며 병원건설장도 찾으시었다. 먼지바람이 건설장에서 인민들에게 휴양소가 과학자들을 위한 《금방석》이 되도록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

주시려 험한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세인은 흠모와 격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정은령도자의 발자취가 찍힌 곳에는 언제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진다. 령도자의 헌신이 곧 인민의 웃음과 행복의 터전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온 나라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이 땅 어디서나 봄철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온 나라 산지들과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공장과 기업소주변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산천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땅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몇해전 만경대혁명화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두고 교직원

들은 원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양심과 불라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과 한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밀거름이 되어서라도 푸른 숲을 가꾸어가겠다는 의지를 안고 식수사업에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설레는 만복의 터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산림복구전투의 불을 지피시고 직접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여 조국산천을 금수강산,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러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화국의 모든 인민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자각과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나무를 심고있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그리며, 조국의 재부, 후대들의 행복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애국의 마음을 심고있다.

본사기자

